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社說

몬트로會議의 成果

一

土耳其政府의 다다넬스海峽再武裝要求에 對한 條約改正會議는 지난六月二十二日 瑞西 몬트로에서 開會된以來 土耳其의 再武裝主張과 英蘇兩國의 意見對立으로 一進一退를 反覆하야 一時는 決裂의危機까지 傳하드니 마침내 關係各國의 互讓으로 大綱의協定에 到達되게되엿다 이제 協定要項을 一瞥하면 一、로잔느條約에 規定되엿든 海峽委員會는 土耳其政府의 主張을 容認하야 이를廢止하고 二、非海峽地帶의 上空通過에 對하야는 土耳其政府가 其通過禁止를 强硬히 主張하엿스나 英佛兩國의 要請을 容認하야 結局 海峽突廓地帶及 말모라上空通過만은 禁止하기로하고 三、英蘇間에 主張對立을 誘致하엿든 『戰時 軍艦의 海峽通過條項』은 蘇聯代表의 修正案을受諾하야 『交戰國의 軍艦及 補助艦艇에 對하여는 土耳其政府와 締結된 協定에依할 境遇를除하고 海峽通過를 禁止하기로決定되엿다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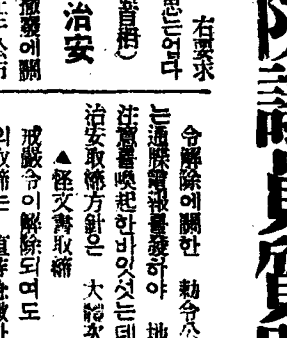
다다넬스海峽은 周知하는바와 가티 黑海와 地中海를 連結하는 唯一의水路인同時에 歐羅巴와 亞細亞를 結附하는 水路로 國際交通上 極히 重要한 地位를占하고잇다。더욱이 黑海에面한土耳其、蘇聯、루마니아、불가리아의產物 特히 불가리아의小麥 루마니아의穀物及石油 蘇聯의 木材와穀物은 모다黑海의諸港口로부터 地中海方面에 搬出되고 또西歐로부터 오는工業製品은 이海峽을通하야 黑海沿岸諸國에 搬入되는現狀이다 그러나 다다넬스、말모라、보스포러스三海峽은 幅員으로보아 모도가土耳其의 領海임으로 右海峽의 防備問題는 非單土耳其國防에만 關係되는것이 아니라 黑海沿岸諸國、한거름나아가서는 關係各國의 經濟的利益에도 重大影響을 가지고잇다

三

伊國의紛爭勃發後 地中海의不安이高調되고 獨伊兩國의 無軌道的進出로 國際間의 諸條約이 空文化한今日 土耳其가 海峽地帶의 非武裝狀態를 그대로 繼續한다는것은 곳自國을 侵略의脅威에 放任하는것이 될것임으로 同地帶의 再武裝을 要求하는것은 國防上不得已한 措置일것이다。따라 土耳其와의 國交關係가 緊密하고 黑海防備上 共通되는立場에서잇는 蘇聯이 雙手를 擧하야 이에贊同할것은 自明의事理이다 萬一 土耳其와 蘇聯의 主張이 그대로 貫徹되여 戰時에잇서 黑海沿岸國을 除外한 他國의艦艇通過가 完全禁止된다는것은 곳地中海와 制海權을 掌握하고잇는 英國海軍의 活動範圍를 一部制限하는 結果를 誘致하는것이 됨으로 英國은 어데까지 自由通行을 固執하엿든것이다 英國이 自國의主張을 撤回하고 好意의讓步를 示하

獨舊領返還要求 英首相拒絶言明

下院議員質問에對答



【倫敦十六日發同盟】過般南阿聯邦國防相피로ー氏는 獨逸政府의 植民地返還要求에 言及하야 英國政府로서도 充分히 好意로써 考慮할것을 言明하엿는데 十六日 英國下院에서는 필로國防相에對한質問이 續出되엿다 但볼드윈首相은 植民地返還의 意思업슴을 闡明하야 다음과가티 述하엿다

獨逸政府는 均等權의 立場으로 舊植民地의 返還을要求할는지모르나 英國政府는 右要求를同情으로써 마즐意思는업다

(寫眞은 볼드윈首相)

戒嚴令撤廢後의治安

【東京電話同盟】戒嚴令撤廢에關한 緊急勅令은 十七日正午公布되여 十八日부터 實施됨으로全國의 治安各警察의 統制는 內務省에 옴기게되엿슴으로 治安及警察의 總本營인 警保局에서는 警視廳을爲始하야 全國警察部와 한덩어리가되여 軍當局과 緊密한 連絡協調로 保持하도 戒嚴令解除後의 治安維持에 遺憾업기를 期케되엿는데 內務當局은 十七日正午緊急勅令이公布되자 直時 內務大臣名義로써 全國地方長官에게 十七日正午官報號外로써 戒嚴令解除에關한 勅令公布되엿다는通牒을發하야 地方長官의注意를喚起한바잇섯는데 今後의 治安取締方針은 大略次와如하다

◀怪文書取締 戒嚴令이解除되여도 圖書出版의取締는 直時急激한緩和를行하지안코 大體로現狀대로의取締를斷行할方針인데 特히怪文書는 二、二六事件誘發의重要起因이되고잇슴으로 이미七月一日公布實施된 臨時怪文書取締法을 適用하는同時에 새로警保局에 專任屬二名및北海道福岡、東京其他關係重要都市에警部十名、다시 一道三府四十三縣에 警部補合計五十三名을配置케하고 專任官으로서 全國警察部를 動員하야 査察內偵에 努力하고 怪文書絶滅을期함

◀言論集會의取締 戒嚴令解除同時에 二、二六事件批判에關한 演說集會가許與케되엿슴으로 特히 事件關係를 批判하는 言論取締에遺憾업기를期할 社會의 安寧秩序의 確保를 目標로 不穩思想鼓吹又는 煽動과如한 言論을徹底的으로 取締함

◀極右其他思想計畫의 取締 專任의事務官三名、屬八名을 特高關係官으로 常置하는外 警視廳外全國警察部에도 警部四十六名 警部補百二十八名 다시 外地專任巡査四十名을 配置하야 特高警察强化를 期하고非合法的不穩矯激한 思想行動의徹底的取締를 斷行하야治安을確保함

몬트로會議에 日本參加는 至難

有田外相閣議서報告

【東京電話同盟】十七日몬트로의 日本佐藤大使로부터 外務省에海峽會議의 經過內容에對한 報告가잇섯다 右에依하면 十六日午後의 本會議에서 條約草案審議하고 十七日부터 條約起草及最終的條文整理를 行하고 十八日의本會議에 附議決定한後 二十日午後正式調印을 하기로되엿는데 日本政府로서는 條約에 參加不參加의態度를 決하기爲하야 連日海軍、外務兩省間에서 愼重審議하고잇스나 아직 最後的決定을보기에 至치못한까닭에 十七日午後七時부터 更히 審議를繼行決定되는대로 佐藤代表에 訓電을 發하기로되엿스나 이보다압서 有田外相은 十七日定例閣議席上몬트로會議의 經過及新條約의內容 다다넬스 海峽問題의 日本에미치는 政治的影響及 右條約이 非聯盟國인 日本의 地位를 如何히取扱하고 잇는가를 詳細說明하고 『非聯盟國이 有效適切한 修正을하야 參加할수잇느냐 업느냐가目下 關係方面과 審議中에 잇고非聯盟國인 日本이國際聯盟의政治上 拘束을 밧는것은 到底히 참기어려운것으로서 此諸點으로부터 新條約參加는極히至難한 情勢이다』라는 旨를述하고 更히 日本政府의取할方針에 對하야 諒解를 求하고 閣議에서는 正式決定을 하지안코 十七日午後 海外兩省 協議會에서 日本態度를 正式決定하고 二十日의 調印式에 알맛도록 訓令을 發하기로 되엿다또二十日의 調印式當日政府는 外務當局談形式으로서 態度를 宣明하기로되엿다

海相도國策案 首相藏相에提示

【東京電話同盟】永野海相은 十七日閣議終了後廣田首相及馬場藏相과 會見海軍國策에 關한 文書를提示하고 補助的說明을 行하엿다 그리고 文書內容은 明年度以降無條約狀態에 對한 計劃의 大綱을 記述한것으로 海軍으로서는 新計劃의 必要한 所以를 强調하야 計劃案의 內容經費等은 八月一日前後에 大藏省에 提出하기까지는 一切此에 觸하는것을 避하고잇다

海峽新條約草案 第一讀會終了

二十日頃調印式擧行

【몬트로十六日發同盟】海峽條約會議는 이미 新條約草案의第一讀會를終了하고二十日頃調印式을擧行할터인데 日本代表佐藤大使에게는 아즉本國으로부터 回訓이 到着되지아녀 日本代表의 立場은 聯盟에唯一의 非聯盟國이다

朝鮮諸官制改正決定

【東京電話同盟】十七日閣議에서 決定한 拓務省關係官制改正의件 如左하다

◀朝鮮總督府專賣局官制中改正의件

◀朝鮮總督府部內臨時職員設置制中改正의件

◀朝鮮總督府遞信官署官制中改正의件

◀朝鮮總督府稅關官制中改正의件

聯盟離脫宣言과 나치스의焦燥

注目되는經濟的難局의打開

단치히問題

平和體制破壞

政治的焦燥

經濟上의困難

로카르노會議 廿二日開催決定

白國首都부룻셀에서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十六日午前閣議에서 로카르노會議開催에 關하야 다시佛白兩國政府와 協議를 逐하기로 決定하엿다 이든外相은 右決定에基하야 佛國大使앙드레、콜반白國大使와 會見協議의結果來二十二日부터 부룻셀에서會議를開催하기로 意見一致를보앗다 閣內의 大勢를 支配하고잇는모양이다

英國覺書 伯林에派遣? 히總統眞意打診次

【倫敦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十六日午前閣議에서 로카르노會議對策에關하야 檢討하엿는데 有力閣僚는 此際 覺書를 携帶케하야 伯林에 派遣하야 히틀러總統의 眞意打診을 主張하엿다고 傳하다 即히틀러總統은 五月六日 英國政府의 質疑書를 接受하고도 在再二個月餘에及하도록 아즉回答이업스므로 해리팩스卿을 派遣하자는 意見이거이

戰時警備令 同時에解除

【東京電話同盟】戒嚴令解除에依하야 第一師團管下에對한 戰時警備令도 解止되게되엿는데 右戰時警備令은 軍令事項이오 二、二六事件突發當時 即二月二十六日午後三時

一、兵力으로써 重要物件을 警備함

一、아울러 一般의 治安維持目的下에 上奏御裁可를 經하야 發令되고 當時의 東京警備司令官인 香椎中將이 大命을奉하야 即時軍隊의一部를 所用方面에出動케하고 岩越戒嚴司令이此를 繼承하야 今日에至한것으로 戒嚴令이解除되여도 無妨한事態가된結果 十七日閑院參謀總長宮殿下及 寺內陸相으로부터 上奏御裁可를仰하여同時에解除될것이다

廣東背面要塞 戰時警備狀態

【廣東十六日發同盟】陳濟棠、李宗仁兩氏는 十六日正午、西南政務委員會에서 西南聯合軍正副總司令就任式을 擧行한後 白崇禧氏代表第四集團軍參謀長 葉琪氏와의 十四師長等 首腦部를 招集한 軍事會議를 召集하며 空軍司令部設置에 伴한各部署를 決定하고 具體的作戰에對한 討議한 結果廣東背面의要塞는 十五日以來戰時警備狀態에入하고 東西北三江流域에서는 小型汽民船人夫의 徵發이 盛行하며 廣東에 地方避難民은 殺到되고 粵漢線의客貨輸送은 十六日朝부터停止될터이므로 顯著한 混亂을 呈하고잇다

第1回 全朝鮮學生美術展覽會

本社는 創立以來로 우리文化向上을爲해서 여러方面으로 가진誠力을다해왓스며 또한아프로도 그리하려는바이다。그러나 우리文化가 항상더 노픈水準으로向해서 끗업시 發展을하는데는 우리社會의未來의 礎石이되는 初中等學校學生諸君의文化的向上을 奬勵하지아니하면 안되겟슴으로 이에 本社에서는 全朝鮮 初中等學生美術展覽會를 開催하는바이다。이것은 昨年가을에 本社가主催한 全朝鮮男女音樂『콩쿨』과함께 多角的인 우리文化塔을 싸어올리는데 잇서서 오로지 本社의獻身的인 巨大한企劃인지라 諸君의絢爛한 天分도 이에서 發揚될것이며 奧妙한 技藝도 여에서 修練될것이니 이兩大姊妹的事業은 오직 諸君에게만 開放된文化의獨壇場이다。

모히라! 그대들의 學園과가티!

보내라! 그대들의 조흔作品을!

그리고 이와가티 巨大한事業은 主催者인 本社의獨力에만依하야 完美한結果를 거둘者아니오、여기에는 반드시教育當事者諸氏의 深切한理解와 多大한協助를 要하는바이니、이러한意味에서 우리는 學校當局과 教育家諸氏의 協力을 企望하야 마지안는바이다。

會期 自九月二十日 至三十日

場所 本社大講堂에서

出品種別

中等部

東洋畫科 (四君子를包含함)

西洋畫科

工藝科

A、彫刻、工藝品

B、刺繡、編物

初等部

自由畫科

手工科

褒賞

(中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 副賞 五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 副賞 三十圓)

入選作中에서左記一級의入賞作을選拔하야各各如左한正賞과副賞을授與함 (以外의入選者에게對하야는全部記念牌를進呈함)

一、特別褒賞【本社長賞】一人百圓

右記特選作品中에서 가장優秀하다고 認하는作品에對해서는 特히 社長賞百圓을授與함

(初等部)

特選賞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牌 / 副賞 二十圓)

優選賞 各科若干人各 (正賞 賞狀 / 副賞 十圓)

一、申請及搬入場所 一、本社庶務部 二、平壤、大邱、咸興、全州各本社支局

一、申請期日 自八月十五日至九月十二日 一、搬入期日 自八月十三日至九月十五日 (但書記文局은通하야搬入할時는九月十四日까지)

一、出品規定 本社所定申請書를請求하야 指定欄에 各項을明細記入하며 本社 又는 各地方事務所로提出하고 作品裏面에도 申請書에記入한바와가티 作品題號及作者氏名、住所所屬學校學年別及 年齡等을明記하야 本社又는各地方事務所로搬入하시오 (詳細規定은要書로問議하시오)

主催 朝鮮日報社

夕刊後市況 十七日

◆大阪 短期	先限		
大新	七四〇〇	(二〇低)	
鐘新	一五八九〇	(一〇高)	
日産	七六八〇	(不變)	
東新	一三三八〇	(一〇低)	
◆綿絲 先物			
當限	七四四〇〇	先限	七三〇〇〇
◆三井人絹 先物			
當限	六一七〇	先限	五九二〇

人事·集會

◆吉田雅一氏(社團法人朝鮮自動車交通協會長) 同協會創立人事次來社

◆松嶋英彥氏(社團法人朝鮮自動車交通協會) 同上

新案特許 三角ザグリ 上等品 良品 生絲及織絲 朝鮮工產株式會社

農林省御指定
特許 實用 中島式自動製粉機
三府四十二ケ縣 指定補助金付
農村營の 指定になる 中島式による製粉業の有利 小資本にて 利益の多い製粉業
中島製粉機販賣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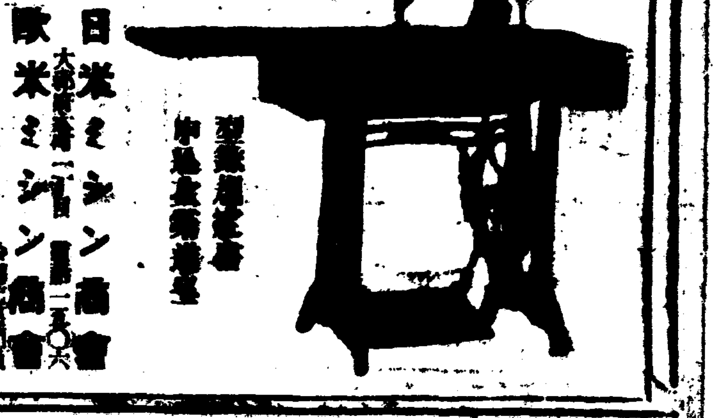
創立明治參拾貳年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出張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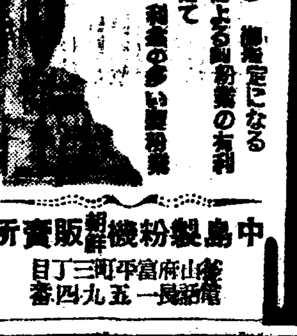
格 レコード
大阪市東區清水谷西ノ町 小林蓄音器製作所
蓄音器

男女とも 毒を受けたと思ったら 毒掃丸を服して 身体よく毒を排泄す
남자나 녀자나 독을바든것가테생각되면 소화잘식히는 독소제 환을 먹어 기분조케체독을 배제함
약점에잇슴 약가 이십전 오십전 일원 이원
代二十錢 五十錢 一円 二円

洗はずに染まる
ナイス染

代理店至急募集
十五種人氣 ユニカ・エス・ミシン
日米ミシン商會





白頭山探險
本社劃期的壯擧

四百五十里無人境 幕營六夜의難程
聖貌靈姿를瞻仰하는한편 興味津津露營生活

본사가 획기적 대사업으로 백두산 탐험대를 조직하야 한번 발표하자 전에 보지못한 이 계획이 사회에 주는충동은 실로 커서 아연 천하의 주목을 끌을게되엿다。

백두산은 해안선에서 떠러지기 실로 륙백여리마량 수백리에 뻐처 수해(樹海)속에 비스듬한 고원을이루어 머리에는 만고명승 천지(天池)를 이고잇는것이 산이로되 산이라할수업고 봉오리로되 봉오리라할수업는 일반산악과는 그류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성악(聖嶽)이다

백두산탐험로정으로는 원래세곳으로 되여잇서 한가닥은 함북무산(茂山)으로부터 오르는코ー쓰가잇고 한가닥은 함남혜산진(惠山鎭)으로부터 오르는코ー쓰와 한가닥은 만주안도현(安圖縣)으로부터 오르는코ー쓰가각각이다 본사에서는 여러가지방면으로 연구한결과 무산(茂山)코ー쓰를 정하기로 되엿든바 종래군대행군코ー쓰와 전연다른점은 종래무산 혜산진량수비대행군코ー쓰는 어느편이든지 천지까지도달후에는 올라가든길로도로내려오게되여 백두산의 한면박게보지못하는 유감이잇섯스나 금번의계획코ー쓰는무산으로출발하야 백두산최상봉인천지(天池)까지이르럿다가 도라오는길은 삼지연(三池淵)을거처 포태리(胞胎里)로 혜산진(惠山鎭)까지 내려오게되야 웅대한 백두산을 완전히 종단(縱斷)하게되는것이다

이사이에도보(徒步)행정은무산군농사동(農事洞)으로부터 천지(天池)경유 갑산군 포태리(胞胎里)까지 백칠십이『키로』조선리수로 약사백오십여리의장정이다 이사이는 인가이라고는 한호도볼수업는 이야말로 진정한 무인지경으로써전후엿새동안을 식료품을 휴대하여가며 로영(露營)을 하지안호면안되는 험로이다

본사로서는 특별히 금번보사탐험단에 참가한분들을 위하야 천막과 자취도구등을 빌려드르는동시에 식료품의운반은 전부본사의 부담으로 하게되엿는바 이러한 숭경중에엿새동안불 천막 생활을 하는것은 얼핏드르면 고생도될듯하지마는 호호탕탕한 대자연 품속에 손수지은 밥 손수만든 료리로포식을 하고 막영(幕營)을 한다고 하는것은 보통려행이라든가 보통등산에서는 도저히 맛볼수업는동시에 미진진한 생활인동시에 다시어더보지못할 귀중한 체험이될것이다 이와가티 웅휘한풍광을마음것 관상하고 진기무류한식물과 곤충을뜻대로 채집하는한편 또다시 이러한 흥미넘치는려행을 하게된다는것은 금번계획이 아니고는 다시차질수업는 기회라고할것이다

경비의 막대한 관계로 일반참가단원은 이십명이상은 절대로 증원을 할수업슴에 따라 참가에뜻잇는분은 하로밧비 신청이 필요할것이다

"上水道給水用具는 不動產의附屬物"
水道係爭에對한新判例

특별한 계약이 업는한 상수도급수용구(上水道給水用具)는 주(主)되는 부동산의 부속물인정한다는 판례――부내남대문통(南大門通)이정목 일백사십번지 성업사(成業社)에서는 재작년이월 식산은행(殖銀)에서 채무를 갑지안한관계로 경매되는 부내고시정(古市町)삼십오번지 삼호삼랑(三好三郞)의소유토지및 가옥을사서 이전수속을한후 그집에 설치되여잇는상수도급수용구 소유명의(名義)변경수속을 그전주인 삼호에게 청구하엿든바 삼호는 급수용구는집과는 한통관련된 물건이아니니 그대가를 내지안흐면 명의변경을 하여줄수업다하야 성업사에서는 작년구월삼십일 경성지방법원에소송을 제기하엿는바 일이심에서모다 특별한 계약이업는바에는 급수용구는 가옥에부속되것이라고로이 지당하다는리유로 원고측인 성업사에 승소판결을 내리엇다 피고측은 끗내 불복하고 고등법원에까지 상고하야 이때다투어오든중 십팔일 고등법원에서도 일이심판결이 올타하야 상고기각판결을 내리여 급수용구는 특별한 반대계약이업는한 가옥에종(從)되는 부속물로 인정되게되엿다

蘇聯의密偵 金大郁等公判
五年과三年을求刑

【淸津】 소련을위하야 [illegible] 구월초순부터 [illegible]까지 사이에 북조선일대의 시설상황급 한국가지의 군대배치상황등을 탐지하여 로서아 게페우에 보고하는 소련의 밀정 김대욱등 이명에대한 공판은 십오일 오전십시부터 청진지방법원 제일호법정에서 호전(戶田)판사의 주심과 송본(松本)검사의 립회로 개정되엿다 사실심리에 드러가 피고들은 대개 사실을 시인하엿스며 다음송본검사로부터 준엄한 론고가잇슨후 최고오년 최하 삼년의구형이잇섯는데 피고들의 주소씨명급 구형은다음과갓다

本籍 [illegible]九 住所 同上 農 金大郁(三[illegible]) 懲役五年

本籍 [illegible] 住所 同[illegible]二五二 店員 金[illegible](三[illegible]) 懲役三年

적과 피고들은 소화칠년 가을에 소련정위군의 밀정 김사칼이라는 사람의 권유로 밀정이 된후 운동자금도 수백원을 바더가지고 암약리에 활동하다가 검거된것인데 판결언도는 오는 십이일이라고한다

京城府都市計畫의 總督府案內容決定
宏壯한道路網과三地域 四地區로分割
不遠、府會를召集、正式諮問

시가지계획령에의한 총독부의 경성부 도시계획안은 금월하순이나 래월상순에 경성부회에자문케되는 그회에 그대로를 집작케될터인데 그내용은 도로망계획과 지역또는 지구설정이크게주목되는바로 [illegible] 도로망에 대해서는 일부분 전하는 바가 대략틀림업고 또공업지대나 상업지대 주택지대에 관해서도 일부전하는바 잇섯스나 지구(地區)에관해서는 아직별반전한바도업섯다 이에관하야 듯건대 그지구는 미관(美觀)풍치(風致)방화(防火)풍긔(風紀)등의 네지구가잇는데 이것은

一、미관지구는 도시의미관을위하야 어떤지역에는 삼층이상의집이아니면 지을수업다던가 기타도시의 미관을 위하야건축기타의 제한이잇고

二、풍긔지구는 학교나 교회또는관청등이잇는 지역을 특정하야 풍긔를 숙청케하자는것이고

三、방화지구는 특별히 화재가 일어난다면 피해가 만흔곳은 특별한 방화또는 내화(耐火)설비를하게하고

四、풍치지구는 공원이나 또는 기타 산이나 강변의 풍치를 보호하야 시민의 보건또는위안처가될만한곳을 지정하야함부로 손질을못하게 하자는것 등이다 그런데 지역의 설정은 각각지역이 구별되여잇서 서로겸하는수가 업스나 이지구만은 서로겸하게되는 수가만케 된다 [illegible]축미관구가 풍긔구도 겸하게되고 또는방화구까지 겸하게되는 수도잇게된다 그러면 지역이어떤지구로설정되겟느냐 첫재 거이확정적이라고볼것은

一、총독부 압헤서부터 태평통일대는『오피쓰센타』로 건축도삼층이상의 고층건물이어야한다는것은 벌서부터이말에 의하여알려진것인데 이일대는 미관지구로 되엿것이고 또 남대문통일대며 종로통일대도 미관지로 지정될것이며

一、종로일대라던가 또는본정통이라던가 상점이 밀접하여잇는거리는 한번불만나면 여러집이 한세번에탈념려가 잇슴으로 방화지구로설정하야 건축에는 세멘콩크리트 라던가 석재 련와등의내화재료를 사용케한다 이특수한 지정을 밧는곳은 건축비의 일부를보조하는경우도 잇게될모양이고

一、또 풍긔구는 학교나 교회또는 관청이 모혀잇는곳으로 정숙을 요하는 구역내에는 유곽료옥의 건축을 금함은물론 큰요리집이나 카페가튼것도금하고 또 기생권번등 풍긔를 울란케할 념려가 잇는것도금하게 될것이다 그중에서 문제되는것은 조선인시가에는 기생들이 어느거리에나 마음대로 거주하게하야 보통학교근처에도 만히 사는 경우가잇서서 아동교육상으로보아서조 이런것들도 어느한동리로 몰아너흘지몰으고 이모양으로 지구를 설정하게되면 첫재로 문제되는것은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로 지정될대로 번의 건물은 의례히 훌륭하여야 할모양임으로 그일대는 시가미를 위해서는 훌륭히될것이나 그대신자격업는사람은 건축상여러가지제한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지니기가 힘들게될모양이다

臨時府會를召集코 食水對策緊急討議
三案을세우고今後九日間의天候만觀望
鎭南浦의斷水騷動最絕頂

【鎭南浦支局電話】 진남포부의 단수(斷水)소동은 나날이 더심하여가서 지난 십오일부터는 급수시간을 매일 세시간으로제한하여오든바 십칠일 오전에는 제일저수지와 제이저수지에잇든물이 팔천삼백돈(噸)박게 남아잇지안허 하로에 구백돈을 소비하는 이부내에서 금후 아흐레박게 유지할수업는 상태임으로 십칠일오후한시부터 진남포부에서는 긴급부회 간담회를 열고 그대책을 강구하엿는데 제일안으로 일천오백원의경비로 우물 설흔개를 파기로하고 제이안으로는 긴급책으로서 내갓수도를 막아버리고 중요지대한곳에서만 급수하자는것과 제삼안으로 한달에 사만구천팔백원의경비를 드리드래도 평양(平壤)에서 긔차로 물을실어오는수박게업다는것으로 일치되여 우선즉시제일안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三南 中部 西北 涼味放送對抗戰

西北應答一 富寧蒼龍瀑

三南(慶尙·全羅·忠淸六道) 中部(京畿·江原兩道) 西北(平安·黃海·咸鏡五道) 原稿投稿歡迎(寫眞과)

참새가작어도 알을나코 종달새가어려도 상투가잇거든 놉흔자랑 큰자랑만 수작이안될말。 사백년 오백년 도학구백년、천년을두고、인간의발길에 시달렷스나 비로직하삼천천은 동물이나안되엿스면 다행일네요 송백단풍어진곳 주뢰첩첩 기암괴석은 땀내나속비를아롱러지。 돗기만해도 콧등이 찡ー러질일。

케케한 분내세、험험한 술상머리로 납부기로 행세삼아 도라다니 구질구질한품이 오작할라고。 이땅의물 이땅의나무 이땅의흙으로 태여나 작이나못나서려산지제(廬山之第)라니 그런모옥도 자랑일가? 송도(松都)삼절(三絶)의하나이라니 정중지와(井中之蛙)는양일이지만 천하제일을 한번구경하소。

터를잡기도 시원스럽게 북으로 북으로 조선의최북단 함경도북도 부령(富寧)따(會寧)과 라남(羅南)사이를 철로연선을 따라 내려오는 수성천(輸城川)이 청진(淸津)부근에서 동해로 빠지는 판에 이수성천을 따라 오봉산(五峰山)줄기를 더듬어올라가면 여기야말로 속된이간의발길을 줄처럼허락지안는 별유천지가 버려젓스니 돌한개 풀한줄기도 범상떠나서 부령팔담(富寧八潭)의 『파노라마』를 벌려노앗스니 그중에도 갈오대 창룡폭(蒼龍瀑)! 푸른목 여의주를 물고 벼룰 따에 부친대로 한울로 치솟는 정편이랄가、어데 번떡、두려어 덜덜! 상상중에이라도 소름을 끼치고 깜짝하다가는 [illegible] 코를 찌르는 바면(杯面)풍파는 억개를 겨두겨로 찰퍼 한엽ー

前檢事瀆職事件 懲役一年半言渡
十五日大邱覆審에서

【大邱】 진주 전검사(前檢事)조인환(曺仁煥)의 독직사건(瀆職事件)에관한 공소공판은 십오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송본(松本)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가티 언도가잇섯다고한다

曺仁煥 懲役一年半(百日未決通算) 五百七十九圓六十錢追徵 金단조押收

姜大仁 無罪

라듸오體操 十七個所에서

조선체육협회(朝鮮體協)체신국방송국공동주최로 매년여름전조선에일제히시행되는『라듸오체조회』는 금년도 오는이십일일부터 팔월이십일까지 한달동안 매일아츰여섯시부터 여섯시반까지 하기로되엿는데 경성부에서는 부내여덜개소에 회장을만드는외에 초등학교아동군데서 하고잇는데 일반부민의참가를 환영함으로경국좌긔열일곱개소회장으로되여잇다

朝鮮神宮前 府廳前 獎忠壇公園 파고다公園 訓武門外 京城驛前 龍山中學校 西大門小學校 惠化普校 三坂小學校 龍山小學校 櫻井小學校 南大門小學校 永登浦小學校 東大門小學校 昌信學校 麻浦普校

撫松縣南岔에 三百共匪來襲

【安東縣】 지난십일오전일시경무송현제이구서남차경찰분주소(撫松縣第二區西南岔警察分駐所)에는 오사령(吳司令)김군장(金軍長)등 항동공산군의약삼백명이 돌연래습하야 그분주소장 양생정(楊生正)이하 십팔명은 그공산군을 물리치고저 격전을계속하엿스나 원체 공산군수가 만흔관계로 경찰측은 두명이 전사하고 한명은 중상을 당하며 남어지열네명은 모다 이질로 도[illegible]

米國代表出征
"資金調達의珍風景"

【뉴욕十五日發聯】 伯林올림픽에 出場하는 米國代表選手 三百八十三名은 十五日 紐育을 解纜하는 맨하탄號로 伯林을 向하여 出征하엿는데 猶太人排斥問題로 伯林大會 參加反對運動으로 因하야 最後까지 所要의 遠征費金을 募集치못하고 結局 二萬一千弗의 不足은 歸國後 聯盟이 返濟한다는 約束으로 選手中에는 自己의 自動車를 팔고 洋服을 抵當하야 遠征費를 調達한 選手도잇서서 黃金의나라 米國에서는 珍風景을 맨들어내엿다 陸上六十六名 水上軍 三十二名을 中心으로 大會參加人員 三百八十三名中 後援隊를除한 三百三十四名이 乘船하엿다 埠頭는 白人黑人의 盛大한 歡迎陣을이루엇다 그리고 米國軍은 二十三日 伯林에 到着豫定이다

獨逸은全種目出場

【伯林十五日發同盟】 獨逸올림픽委員會는 十五日午後 [illegible]에 會合하야 選手總數를 決定하는 同時에 全獨逸代表軍總數及男女陸上·競泳·拳鬪·蹴球等의엔트리ー를 決定하는 一方獨逸體育長官 폰·찬멜·오스텐氏로부터 다음과가티 發表되엿다 獨逸은 今年度大會에잇서 全十九種目의 參加를 決定하는 同時에 女子代表를 包含한 四百三十一名의 大部隊를 出場시키기로 決定하고 [illegible]에對하야 全面的 進出을 期하는것이다 今回의 代表에 關하야서는 歐洲大會의 優勝成績을 完全히 脫出한 新興獨逸의 面目을 表現하는 代表들로서 [illegible]

運動競技
送別野球戰 十二對五、全京城勝

第十回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에 朝鮮代表로 出場하는 全京城軍對全京城殘留軍과의 送別野球戰은 京城運動記者俱樂部主催로十七日午後五時七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白石、平井(壘)三氏審判下에 全京城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十二對五로 全京城軍이 勝捷하엿다 (閉戰七時十五分)

◇投捕=(全京城)中島、吉本、李榮敏—小笠原、佐藤、(殘留軍)松本、安藤—佐田、中川

殘留軍	021101000	5
全京城	000511005	12

아마拳聯理事會經過

全朝鮮아마튜어拳鬪聯盟新任理事會는 十七日午後四時半부터 同聯盟事務所에서 七[illegible] 體理事가 參加한가운데 會長兪億兼氏司會로열고 諸般事項을 討議한바이엇는데 常務理事로尹鎭憲 朱興根 李惠澤三氏를 選定하고 明大在學朝鮮選手에對하야는 事情에依하야 保留하기로되엿다

'家盜'

【公州】 [illegible] 리룡배(李龍培)는 [illegible] 지난 [illegible] 나오자 [illegible] 빠져 [illegible] 자기집에 [illegible] 현재 이구 [illegible] 나옹이다 그리고 그들은 [illegible] 원가방의 손에를 바미 메우끈 [illegible] 어디처나라서 주민들은 악이천 [illegible] 하고 외복 [illegible] 만히 [illegible] 되엿다고 하다 그들은 [illegible]

싸움말리다싸움

십칠일 오후네시경에 시내청운정(淸雲町)오십칠번지 리두요(李斗耀)의 집에서 로동자 리석재(李錫在)와 천세엽(千世業)이가 싸움을 하는것을 백익도(白益道) 제신일(諸信一)이라는 로동자가 말리라다가 네사람이 싸우게되여 제신일이가『삽』으로 백의머리에 중상을입히고 종로서에서취조를밧는중이다

아이들싸움에 어른은칼부림

어린아해들싸홈에 편역들다가칼부림한 흉악한자―시내 명륜정(明倫町)백륙십칠번지의 이호이창정미소(二倉精米所)고용인으로잇는 조백봉(趙伯奉)이란 자는 십칠일아츰여덜시반 자긔집아페서 아해들싸움에 편역을들다가 싸움이되여 고긔행상을하는 그동리백점석(白點石)을신어엿든 게다짝으로 머리를때려혼도케하고 그도부족하여셔는지 식도를가지고 왼손바닥을 질러 륙혈이 낭자하게만들어 대학병원에서 응급치료를바덧스나 전치까지는 상주일간이상의 중상을입히엿고 가해자는 현장에서 소관동대문서원에게체포되여 지금엄중취조를밧고잇다

◎어떠케하면 좀더잘사나?

우리가 이세상에 세거나서 인생고해(苦海)라고 고생마하고산다、쌍가마(雙轎子)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곳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이어서 하고십흔일못하며 돈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은업어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흐면서도 번가치가면서 병을알는다든지 일일히들어서 말할수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 병이잇는것이다 선외무물이라 전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허도쓸대업고 지위(地位)가 놉다해도 다ー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터비접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더구나몸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당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들어 머리만좀 아퍼도 견디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 보면 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런대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위생(醫學과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병을알고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니우리가 좀 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나면제일병에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야저서 죽게까지 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ー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ー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좃타하다 이것은 입달린 사람이면 다ー말하거니와 더욱 각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 [illegible] 날마다 나다싶히하는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 것이다 호미로막을물을 등한히 하면 가래로도 못마게되니 이 글을 보시면병에만은신성당약을 곳쓰시오 행복과광명은 서울신성당으로부터! 신성당 칠대명약 외에 무슨약이든지업는것이 업사오니 다소를물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턱 제일큰 휘별롯집 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십시오 진체구좌는 경성四九五〇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당일로보내드립니다

칠대명약

체증 소화 완고중증경 겡오ー 용용용 일이삼원원원

림질 대하 냉병 완고만악성급 구로벨 용용용 삼오구원원원

매독 완고중 푸로다ー 용용용 삼오칠원원원

부족 늑막 폐병 삼병염증 나오뻬ー 용용용 [illegible]

보음 보양 초이삼기기기 가이자ー 용용용 오십이십원원원

기침 천식 해소 경중 에치뻬ー 용용 오십원원

처질 약 경중 에구루 용용 일이원원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자에자ー KAIZERー 가제일

[illegible]

폐병 늑막염 부족증에는
나오뻬ー NAOPERー 가제일

[illegible]

림질 대하 냉병 하증에는
구로벨 KUROBER 이제일

[illegible]

매독엔
푸로다ー PROTERー 가제일

[illegible]

京城西大門入口 本舖 神崎神聖堂藥房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五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洪水期當한漢江岸 今年도放心不許

麻浦、纛島、永登浦堤防工事 明年度까지에完成

작년 장마때도 침수(浸水)하엿슴으로 강안 한강연안 주민들은 벌서부터 홍수념려를 하게되엿는데 념년겨 는 홍수라 대개는 어느곳에물이 만히 든다는것을 알수잇는 것이나 그동안 홍수대책도 다소 엇지안햇슴으로 금년은 작년보다 다소라도 방수시설이나 어지지 안햇슬가하야 경성부에 물어보니 아직금년까지는 작년과 대차가업다 홍수념려가 되는곳은 첫재、마포일대이다、변전에 총독부의 국고사업으로 착수한 한강치수사업으로 마포에서 동막(東幕)방면으로 내려가는 강안일대에 제방이 되엿슴으로 전가튼 큰물은 안간다고해도 아직그제방의 수문(水門)과수로가 되지안흔관계로 내수(內水)의 배출도원만치안코 강물이 몰려올때는 그대로다들어와 근방일대는 오륙백호식 침수를 보는데명년까지에 공사가 준공된다면내수 배출도잘되고 강물도못들어오게 될으로 홍수난은 버서날터이며

一、한강치수와 관련한지역으로는독섬일대가 아직제방공사가 준공되지안허서 물만나면 피해는 여전할터인데 이것도명년에이르러서야 제방공사의완성으로홍수난을 면할것이고

一、그외에는 영등포(永登浦)의 일부가 내수의 배출이 잘되지 안키때문에 침수되는곳이 잇다

이상세곳은 모다 명년까지에완성될 한강치수공사에 의하야수난을 면하게될터로 금년은 수해를 면치못할터이다

專門校入學準備 夏期講習會開催

시내삼각정(三角町)륙십구번지에 잇는 한영학원(漢英學院)에서는 고등전문학교 대학예과입학지망자의 수험준비를위하야 칠월이십일부터 팔월십오일까지 (日曜休)매일 아침 다섯시반부터 일곱시사십분까지 상급학교입학 시험과목중 제일 난관인 영어와수학에관한 하과강습을 개최한다는데 모집인원은삼십명으로 한정되여 잇스며 자세한것은 동학원에 문의하기를바란다고한다

沿江에水防警告

旱魃다음이라念慮不無

【京畿】하절기이면 년중행사와가티 한강수의 범람으로 인하야 연안주민들은 다대한 피해를 입어오든것이 상례로되여잇는데、금년도 벌서 장마통에 장마철을 당하게되여 연강주민들은 벌서부터 홍수가 습래할것을 방비코저 각방으로 방수책을 강구하기에 망쇄하고 잇다한다 금년은 가물이 례년보다 심한 나머지에 또한 갑작이 장마로 변하야 수해를 당할가의심하고 연안일대 각 진흥회(振興會)와 수방단(水防團)기타관할 경찰서에서는 만반으로 방수준비들을 하야노코 일방 주민들에게 경고를 발하고잇다한다

開城에窃盜盛行

【開城】개성은비교적 범죄의무풍지대라하나 요지음은 한발이 심한탓인지 처처에서 도난사건이 빈번하야 지금 본서사법계실에는 별별가지 도난계출서가 산가티싸혀 경찰의 마음을어둡게한다。그런데 이번사법주임(朴司法主任)이부임하면서 도난범 곽청운동에 본이올세워가지고 동서형사대들과 구수밀의를 거듭하며 불철주야로 범인체포에 로력중인바 요사히는 절도범만도 하로에 네다섯명식체포하야 텅비엿든 류치장은 만원이되엿는데 그래도여전히형사대는 범인퇴치에 염천과싸호고잇다

赤痢藥割引販賣

요지음에 경성시내에는 리질(痢疾)환자가 만히 발생하므로 총독부에서 제조한 예방약을 만히 먹게하기위하야 시내각약방에 지정하야 정가이십전자리를 십오전에 할인하야 팔게하엿다 이것은 각학교회사 관청또는 각동리에서 한꺼번에 다량으로 주문하는데만 할인으로 수응하기로 되엿다한다。

雨期와水防會議

◇京畿道에서開催

경기도에서는 오는이십일 오후한시에 경기도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경성부윤 철도국장 체신국장 부내각경찰서장 경성측후소장 소방서장 룡산헌병분대장 내무국경성토목출장사무소장 수방(水防)담당각구역정총대(町總代)경성전긔회사전무등수방위원(水防委員)오십명을 회합하야 수방에 관한협의회에 대한 토의를할터이라한다

원수는외나무다리에

경긔도개풍군남면 옥산리(開豊郡南面玉山里)에 원적을두고일정한 주소업시 도라다니는 전과이범장항달(張恒達)(三二)은원수는외나무다리에서 맛나는 격으로 십륙일오후 세시반경되여서 내신설정(新設町)삼백칠십삼번지압길에서 부외독섬목리(纛島面牧里) 김원룡(金元龍)(二四)을맛난것이 망운이되여 전과장이가지고잇는 휴대용 충음기와 『레코ㅡ드』 스물두장이 김씨의집에서

情婦가四五名

窃盜無慮卅回

仁川署에서逐捕

【仁川】인천부 (仁川府)송현리(松峴里)사십구번지 변영기(邊永基)(二五)는 지난십오일 율목리(栗木里)십오번지 김병제(金炳濟)씨의집에 외투외 수십점을훔쳐 절취한사실외에 시내시외에 전후삼십여회의 범행을하얏슬뿐아니라 이것을파러서 미묘를 장기로카페와 각료정을만유하야 그의정부가 사오명이나되는 근일에 보기드문절적이라한다

우리아들이 學園

新明學校篇

先生들의殉職的奉供 校運과同苦同樂

한때는進明女校와姉妹格으로 未久에普校로昇格！

서울의 진명(進明)여학교라고 하면 아마도그존재가 젼조선적으로 알려잇슬상시프나 신명학교(新明學校)라고하면 서울서도 일부인사를 제하고는 아는사람이드물것이다 그러나 이두학교가지금으로부터 약삼십년전에 서로전후하야 한사람의 손으로창립되고 남자는신명에서 녀자는진명에서 라고부르지즈며 가튼지점에서 동시에출발한 이두학교의교운이 이가티도 서로동쥐길을것거쳐지에는 남에게 말하기어려운 눈물겨운 이야기가만흘것이나 이것은학교 당국자의결장을고려하야 이곳에서는 말하기어렵다 이상과가튼 리유로이가티 두갈래길을 걸어온두학교중의 한학교인 신명만을 분리식혀가지고 기록하여 볼가한다

×

지금으로부터 삼십일년전이광무십일년 당시로서야희동양재패의 용도를 여지업시 부서버린열로(日露)전쟁도 끚치난 바로 다음해일것이다 구한국군대가 해산하며 군적을 떠난 두사람의 하사관박제준(朴齊駿)김룡준(金龍駿)씨등이 당시 루상동(樓上洞)백오십번지에 잇든 민가한채를 사가지고 배움에 굼주린 표어아래 무산아동수십인을 모집하야 친석을펴고 그들을 광명한 세계로 인도하고 잇섯다 이서당이야말로 신명학교의 전신으로 박김량씨가 마터본 그간은 불과일년에 지나지안햇다 그동안에 상당한 긔초가 서잇섯든것이다

×

다음해인 명치사십년에 전긔서당을 확충하는동시에 사립신명학교라고 부르게되엿스며 전해부터 다소경제적원조를 하여오든 엄주원(嚴柱元)씨가 설립자겸 교장에 피선되는 동시에 로량진(鷺梁津)에잇든 당시한국내부대신(內部大臣) 유길준(兪吉濬)씨의 별장인 봉자정(鳳子亭)을 기부바덧는데『귀여운 우리아들의 동정을』하며 부근일대의 절문이들이 총동원하야 로량진서 류상경 산록때이까지 옴겨다 지어다고한다 이가티 만만한훈지로 부형과 학교당국이 손을잡고 험한비탈길을 거러오기 십유오년 대정십년사월에 모사정으로 조선원씨가 학교의 경영권을 조선불교(佛敎)상섭보사년합회에 양도하여엿슷다 경영주가 바귀인후 신개월이 저나서 『구설립자엄씨가 다시여학교를 인수하고 현교장류영렬(劉永烈)씨가 교장에 취임하엿다 그해서월에는 부형과 유지제씨의 긔부로 협교사인 이층건물을 신축하여스며소회이변상필에는 설립자 한사람을 열네사람으로 변경하고 설립자제씨가 소회상편시월부터 기로하엿다 소회비용을 분담하자부를 설치하고 어여시무산자의 녀아동를 주로 모집하여교육하여왓다

×

이학교의 아동수효는 현재남녀총수가 오백오십여명인데 여덟학급에 선생님 열분이 게시다

×

졸업생은 금년봄까지 사백여사명으로 상급학교에 가는학생은열몇업고 대개가 은행회사관청등지에서실무에 종사하고잇다 이학교가 무산아동을 교육하기위하여 수업료도 면제하는아동이상당히잇는이만치 학교경제가운데지못한것은사실이나 교장이하여러선생님들이 전혀 희생적으로 일하고잇스며 사회유지들의 열렬한지지가잇슴으로 머지안흔장래에 재단을 완성하야 지정보통학교가될것이다 이학교가 다른조선학교와다른점은 상급학교입학이란 소위준비교육을 전연하지안코 사회에나가서 실무를 담당함에과히 어색지안토록 실업교육에 전력을 경주하고잇는점은 실로아동의 환경을 충분히 인식한데서 출발한교육이라고볼수잇다 이가튼 궁핍한생활가운데서도 사태울세채나 작만하여 선생님들로하여금 밤낫으로 학교에와서 일볼수엇도록한것도 어학교의 한가지자랑일것이다 마지막으로학교마다 부러할것은 이학교 검상진(金[illegible])안명수(安[illegible])윤 두분선생이 아직부를 마련가지고 가정부인을주로하야 상편간 예루비재보통학교 전과목을 마치도록 교수를하고잇는데 어것이실시되는것은 소화오년일월부터며 현재이원은 약이백명이라하니 이신명학교의 공적은 우리는 이기회에 특필대서하야 널리사회에 알릴필요가 잇지안흔가한다

(사진은 교사와 회장)

京城과平壤 水上對抗

十二種目으로決定

第一回京城對平壤水上競技對抗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來八月十六日午後一時부터 平壤에서擧行할터인바 競技種目은 自由型＝五十米、百米、二百米、四百米、背泳＝五十米、百米、二百米、平泳＝百米、二百米、三百米메도레릴레、二百米릴레、八百米릴레等 十二種目이며 採點은一着三點、二着二點、三着一點制에는一着三點으로하고每人出場三種目限、各軍二名式出戰하기로되엿다 이에出戰하는 京城代表選手은 八月初旬에열리는 最終選考會에서 選拔하기로되엿다

競技別參加數

籠球廿五、拳鬪卅八

第十一回伯林올림픽參加申込은 旣報한바와가티 全部五十三個國이란空前의多數에達하는바 各種競技別의參加數는 다음과갓다 陸上四十五國、水上四十、籠球三十八、레스링三十三、펜싱三十二、自轉車三十二、射擊三十一、拳鬪二十七、요ㅡ트二十六、體操二十五、馬術二十四、漕艇十九、蹴球十八、現代五種十八、[illegible]十五、하키ㅡ十四、빨로七、핸드볼六

나치스獨逸의 "運動保險"

最近의 運動醫學은 漸進的으로 硏究되여 進步의 途程을 밟고잇다 그런데 運動選手가 競技中에 負傷한다든지 또는 그負傷으로 因하야 不具廢疾에 빠질때의 救濟方法은 아직것 東洋에서는 볼수업는일이다 學校或은 勤務하는會社의 名譽를爲하야 피와땀을흘리든 運動選手가 一朝에 病魔에걸니여 學業도職業도 抛棄하지안흐면 안되는일은 만히잇는 實例다 그러나이境遇에잇는 그選手에게 同情하는者은 一抹의 同情心도 업시 人情의 弱點을 暴露하는 事實이 만히잇다 그러나 獨逸에서는 蹴球、庭球、拳鬪、스케ㅡ트等 各運動競技入場券에는 正規入場料外에 반드시十五페니히되는 金額을 課付하게되엿다 이것이 『스포ㅡ츠・그로센』(運動保險)으로 運動選手의 救濟資金으로 使用될 保險料의 徵收를 가지고잇다 勿論其金錢의 管理者는 『나치스』政府의 運動當局에서하고잇다 그런데 이制度의 『스포ㅡ츠・그로센』은 英國에서의 劍橋牛津兩大學間의 『보ㅡ트』競漕때 選手養成基金으로서 十펜스式 入場料外에 徵收하고 잇는데서 『힌트』를어더서 비로소 制作하엿다고 하는데 이와가튼 制度가 더合理的으로 또는數理的으로正確한것이 進히東洋에서도잇슴직한것이다

元山水泳講習

八月三日부터開講

朝鮮體育會와 朝鮮水上競技協會共同主催의 第七回水泳講習會는 來八月二日부터 十一日까지(十日間)元山松濤園에서 開催키로된바 이講習會의 參加規定은다음과갓다

▲申込＝七月三十日까지 京城府鐘路一丁目四六 朝鮮體育會(振替口座一九九九四番)

▲講習會期及會費＝八月二日부터 十一日까지(十日間)會費一圓

▲講師＝[illegible]、金泰植兩氏

▲出發＝京城에서本隊出發은八月一日午後十一時京城驛發列車로 (京城驛集合은이날午後十時)

▲汽車賃金＝割引三割引(京城元山間往復四圓九十四錢)學生四割引(同四圓二十一錢 但學生證明書를要함) 車票通用期限은 二週間임으로 釋王寺 三防峽等 避暑地에 途中下車할수잇는 特典이有함 (但本會員에限하야)

◇野營生活規定

▲自炊費用＝十日間 計算 八圓 (一日八十錢式)此計算額은 松濤園合宿大幕敎費 自炊道具使用料 食料給料等을包含、斷望希望者는 講習會當局와 合하야 九圓을 要함

▲携帶品＝(必須品)海水浴服 담뇨 베개 숫가락 젓가락 칼 食器 洗面道具 모기帳、또는 모기藥文房具 스웨터(參考品) 趣味書類 樂器 其他樂器類等

白友庭球對徽文戰

東京留學生으로 組織된 白友庭球俱樂部對 中等學校選拔軍과의 對戰은 昨十七日午後四時부터 中央佛專코ㅡ트에서 擧行할豫定이엇스나 이날降雨로因하야 不得已中止하고 今十八日午後四時에는 徽文軍(徽文球場)과 十九日午後四時에는 在京專門學校選拔軍과 對戰하기로되엿다한다

陸上十二種制覇確信

米蹴陸上監督로바ㅡ트손談

【랜드ㅡ르스・아이랜드發電】好記錄續出의 全米陸上選手權大會後 米國陸上監督 『로ㅡ손・로바ㅡ트』손氏는 喜悅에넘치는 顏色으로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新記錄選手들의 驚異的活躍은 [illegible]하야 世界記錄保持者와 定評잇는選手들이 連續落伍한것은 實外의일이엇다 이와가티 選手權에 激烈한勝負이엿섯든것은 米國으로서는 參考하엿든데 이것은 다만米國이 世界에 자랑할만한選手들 多數確保하고잇는것을 證明하는것이다 實力이 잇슴에도 不拘하고 豫選會에서 『컨디슌』이不良하야 代表選手에選拔되지못한 選手는 참으로 未安한일이나 독가튼 力量을가진 選手가 가장 大多數이엇슴으로 이豫選會를 絶對의 代表豫選이라고 아니할수업스며 最初부터의 約束이잇섯서 누구든지 不平을말하지안흘것이다 走高跳의『쫀손』君은 伯林大會에서 二米一〇을 跳越할可能性이잇고 오웬스君도百、二百米、走幅跳의三種權을 米國이獲得할것은 거이틀림업다 그리고 英國의八百米와 北歐洲의 優秀한 三千米障碍에有力한 選手가 輩出한것은 米國으로서는 前例에업는 强敵들 보이고잇스며 千五百米에도이길自信이 만타 遠征의 『헌드캡』이잇다하드라도 百米、二百米、四百米、八百米、千五百米 高障碍、中障碍、走高跳、走幅跳、棒高跳、四百米繼走、千六百米繼走等 十二種目의 制霸는 確實히 實現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illegible]의 進出이 歐洲方面의 [illegible]하야 伯林大會와가튼 [illegible]에잇서는어떨는지 女子競技에잇서서는 百米의 「스텔라월쉬」에게만信望이 잇스며 其外에는 全部[illegible]에게 [illegible]것으로 豫想된다

英陸上代表四十六名

【倫敦十三日發】陸上競技의伯林올림픽 英國陸上代表選手인 英國의 [illegible]는 지난十、十一兩日間 擧行한 A・A・A選手權大會의 成績에依하야 陸上競技結果 總數四十六名으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水上競技에는 男子九名、女子七名의 代表選手團이 編成되엿다

今日의運動

▲庭球＝東京白友俱樂部對徽文對抗戰 午後四時 徽文高普코ㅡ트(觀覽無料)

▲럭비＝東京留學生軍對養正高普 午後五時 京城運動場 (觀覽無料)

路幅四米突未滿地엔 建築을不許可方針

一千餘件申請에三分之一이法規에違反

道路線의認識不足이主因

해마다 팽창하여가는 서울의건축열은 머물줄을모르고 각처에진행중 금년부터는 행정구역의확장을보면서 한층더심하여젓스나 시가지계획령의한여러가지의복잡한 규정으로 건축은 원만히 진행되지못하고 그중에는 완전히 정체되는것이만흘터이다 일반건축에대한 허가는 모다소관경찰에서 감독하는것이나 먼저건축을 하자면 도로선과 건축선을 명료히하기위하여서는 건축귀저 종래와도로선의 명시원서를 경성부도로과도시계획계에제출하야 그수속을 필하여야 되는데 사월하순이래 원서수리는 지금까저 약 이천여건으로 최근에도 하로에 삼십건내외가들어오고잇다 그런데 그중에는 수속상건축할수업는경우에 잇는것이 약삼분의일을 점령하고잇다한다 그리유는 모다가도로에 대한 지식이업기때문인데 례를들면 종래의주택사들이 어떤공지를사가지고 주택지로분할하여파는곳중에 도로설비를작만하되 법규대로 하지못한 때문이다 즉 시가지 계획령에 의하면 새로되는도로는 모다사메돌이상이어야 하는데 전과와가튼장소는 로폭이사메돌도 되저못함뿐더러 도로가 사유지로서 공도(公道)의 인정을밧지안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할수업게된다는것이다 그럼으로 먼저도로를 신청하되 공도로서 부당국의 인정을밧지안흐면 건축을허가할수업게된다는것이다 이런사정으로 그간건축허가원을 제출하고도 건축을못하고잇는것이만히잇서 서울의건축계는 일대정돈을보게된모양이라한다

德壽公普同窓會

부내정동(貞洞)일번지 덕수공립보통학교(德壽公普)내에잇는 덕수교우회에서는 오는십구일오후 두시부터 그학교강당에서 총회를열기로되엿는데 회원은 만히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그리고 회비는 삼십전으로 당일 가저오면 조타고한다

술먹여醉케한後 土地를詐欺賣喫

犯人은永登浦서送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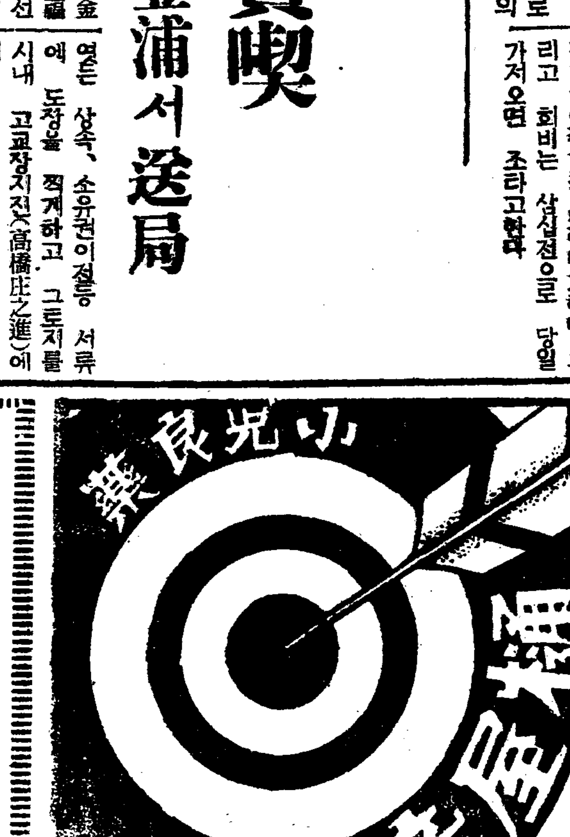
【永登浦】시내 본동정(本洞町) 사백오십이번지 무직 [illegible](金得子)([illegible])과 시내 황금정(黃金町)삼정목 복덕무진주식회사(福德無盡株式會社)외교원 리익선(李益善)(?)은 수일전 시내영등포정(永登浦町)오십사번지 단도환(段道煥)(?)이가 로량진역전(鷺梁津驛前)에 그선조의 분묘지 어백여평을 소유하고 잇스나 무식한탓으로 그아버지 단례봉(段[illegible])으로부터 상속등기를 하지안흔채 내버려두어 자긔소유권에 속하는사실조차 알지못하는것을 긔화로 두사람은 공모한후 단도환을 모료리집으로 초대하야 술을잔뜩 먹여노흔후 우리들은 자네집분상이엇는 상의자로부터 이전료 칠십오원을 준다는 조건으로곳 다른데로 이장하도록 교섭하여달라는 부탁을 바덧스니 즉시 이전하여달라고 감언으로 꾀여 취하게쓴 미리준비하여엿든 상속 소유권이전등 서류에 도장을 찍게하고 그토지를 시내 고교장지진(高橋庄之進)에게 일천칠백원에 매도하고 전기 단도환에게 일백오십원을지불하엿는대 이것을바든 단은 칠십오원을준다든것을 웨일이지 일백오십원을 지불하여주므로 이상히 생각하고 그매부되는 시내 본동정(本洞町) 서모(徐某)에게 전후사정을 말하고 내용조사를 부탁하엿스나매부조차 전기량명과 가려 술만먹고 돌아단기므로 직접 자기가 각방면으로알어본결과 드되여 사기당한것을 알고 영등포경찰서(永登浦署)에 고소를 제긔하야 동서에서는 신사법주임(愼司法主任)의 손으로 엄중취조를 마치고 십오일 김리량명만 검사국으로 넘겻다고 한다

船中에賭博開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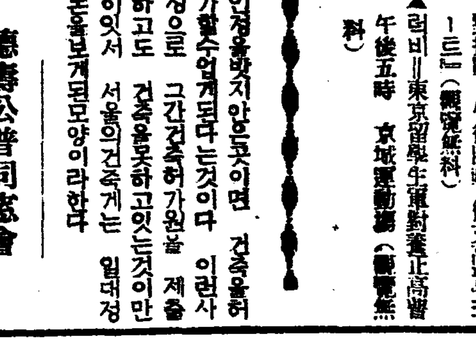
警察에發覺一網捕盡

【驪州】려주군천내면 우만리(驪州郡川內面又晩里)구십삼번지 주춘실(朱春實)이란 선부(船夫)는 충주군금가면 화당리(忠州郡金可面花塘里)사백여섯번지 지화만(池[illegible])(二四) 동군엄정면목계리(嚴政面牧溪里)이백칠십삼번지 신창수(申昌秀)(二五) 동군앙성면청천리(仰城面淸川里)일번지 김동규(金東奎)등 네명과 지난칠월십오일 오후네시경에 부외흥교면영정리(府外興敎面領井里)우편잇는 한강하류석에서 김동규배를라고 「공동이야」라는 큰도박을 개장하던중 당지주재소경찰에탐지되여 체포하는즉시 검성서로압송하야 엄조중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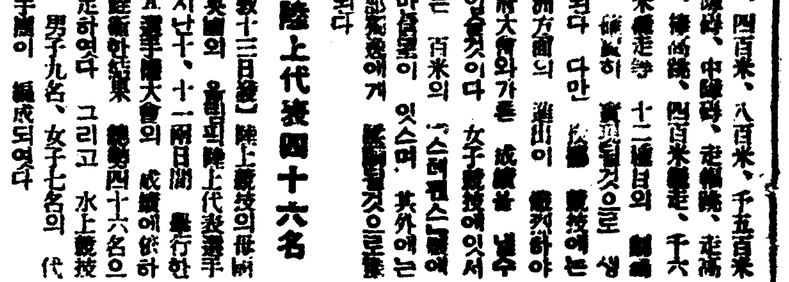
味の素(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舗 株式會社 鈴木商店
7-ニ



百發百中
育兒名藥의偉効
小兒病이면무엇이던지病症、體質을不問하고이집웃이一粒打藥으로
救急、治病、保健
無代進呈『育兒の友』
主効: 감기, 보채고, 身熱, 驚風, 경련, 消化不良, 夜泣, 吐乳, 發疹, 胃腸衰弱, 其他一切小兒
賣價 二十錢부터 十圓까지 (徳用包一圓)
大阪天滿 本舖 樋屋合資會社
11-K-3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순하게 痔疾淋疾諸毒을除함
大阪 高津表門筋
振替大阪九七三二



堂々たる大景品

景品內容
一圓以上の品一個毎に朝鮮日報發行雜誌朝光一冊進呈
六圓以上の品は山梨縣特産物純粹の高級水晶ワイシヤツボタン一組を進呈致ます
九圓以上品は朝鮮日報一ケ月購讀券一枚を進呈致ます

瑞西製 クロム側16型懐中

	石	市價	特價
イ	7石	7圓ノ品	2.50
ロ	7石	9圓ノ品	3.75
ハ	7石	15圓ノ品	5.50
ニ	7石	18圓ノ品	7.90
ホ	10石	9圓ノ品	5.00
ヘ	10石	13圓ノ品	6.05
ト	10石	17圓ノ品	7.95
チ	10石	20圓ノ品	9.50
リ	15石	19圓ノ品	7.80
ヌ	15石	23圓ノ品	8.90
ル	15石	27圓ノ品	9.55
ヲ	15石	30圓ノ品	13.50

クロム側16型懐中ウオルサム

	石	市價	特價
ワ	7石	25圓ノ品	7.55
カ	7石	29圓ノ品	9.00
ヨ	7石	35圓ノ品	11.50
タ	7石	38圓ノ品	17.95
レ	15石	40圓ノ品	15.90
ソ	15石	45圓ノ品	20.80
ツ	15石	55圓ノ品	23.50
ネ	15石	79圓ノ品	32.75
ナ	17石	9[illegible]圓ノ品	3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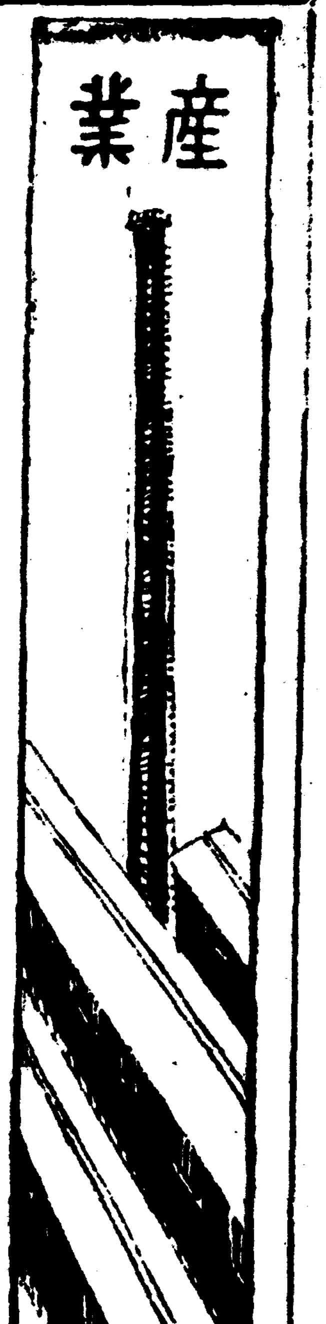
高級純良 水晶사쓰와이 ボタン
朝鮮日報購讀券
雜誌朝光

瑞西製 クローム側腕巻

型		石	市價	特價
(11型)	イ	7石	7圓ノ品	2.70
	ロ	7石	9圓ノ品	3.95
	ハ	7石	13圓ノ品	4.90
	ニ	7石	19圓ノ品	8.50
(10型)	イ	7石	8圓ノ品	4.20
	ロ	7石	9圓ノ品	5.90
	ハ	10石	12圓ノ品	6.50
	ニ	15石	19圓ノ品	8.75
(9型)	イ	7石	9圓ノ品	5.80
	ロ	7石	14圓ノ品	6.70
	ハ	10石	17圓ノ品	7.90
	ニ	10石	19圓ノ品	9.80
	ホ	15石	18圓ノ品	6.90
	ヘ	15石	19圓ノ品	8.35
	ト	15石	23圓ノ品	9.50
	チ	15石	27圓ノ品	13.45
(8型)	イ	7石	10圓ノ品	6.55
	ロ	7石	12圓ノ品	[illegible]
	ハ	10石	15圓ノ品	[illegible]
	ニ	10石	17圓ノ品	9.80
	ホ	15石	13圓ノ品	7.50
	ヘ	15石	16圓ノ品	9.10

前金註文は送料不要・代引は三割以上內金を必ず先送し
荷送料四十錢負擔の事 內金無代引ハ景品の関係上進呈セズ

가다로구를 청구하시오
天賞堂
東京淺草松葉町二十二 振替東京六六八五七番



産業

東海岸의鰮漁獲 어쩨야겨우本格化

變態的氣溫은大資本漁業者엔別無影響 在來漁民에打擊深刻

今年의 變態氣溫은 鰮漁獲에 影響한 漁期延長을 招來하야 咸南北、江原은 七月中旬에 入하야 겨우 本格的漁撈에 入하게되엇는데 今年의 特殊的海流異狀으로 同漁撈에잇서 沿岸漁業者는 深刻한 打擊을 바다 그推移는 憂慮되고잇다

이는 今年의 海流가 沿岸에 잣가히 低溫이기때문에 鰮群은 沿岸二十浬乃至四十浬의곳에 回游하야 機船巾着網等의 資本的漁業者에는 格別漁獲의 支障이업스나 沿岸漁民 即流網 其他의 幼稚한 在來漁法에依하는者에는 거이 漁獲이 업서 深刻한 不漁를 繼續하고잇다 朝鮮에도 沿岸漁業과 沖漁業問題가 漸次重要視되고잇는이지음 天候異變에依하다고는하나 沿岸漁業의 不振은 注目되고잇다

最近二年間의 江道原鰮漁況

【注文津】江原道鰮油肥製造業水産組合의 調査에依하면 道內各鰮漁地의 年度別鰮漁獲高는 다음과갓다하다

◆九年度

注文津	一四七九二〇噸
長箭	一七三七一
高城	一五一〇六
巨津	八九四八
大浦	三四六二四
安木	一八七五〇
墨湖	三一九四七
三陟	五〇七三〇
邑院	三六三〇〇
竹邊	二四九三〇
烏山	一九〇九〇
箕城	一四一一〇
平海	三六四〇
合計	四二三四六六

◆十年度

注文津	九一八六四
長箭	三一二二六
高城	三七五三八
巨津	二四二四〇
大浦	六一五二〇
安木	一一八〇〇
墨湖	六四七九九
三陟	一五一三〇〇
邑院	七七七五〇
竹邊	六八四二〇
烏山	三一九六八
箕城	二〇四五〇
平海	九七〇八
合計	六六五三五八

連日의好雨로 全南移秧은進捗

十日現在九割八分은畢了

【光州】全南道는 今年 農繁期에들어 五月과 六月初旬까지비가오지안허 一般農家에서는 勿論 都會地에서도 飮料水不足으로 不安에 싸혀昨年의 殺人的旱魃을 聯想케하드니 六月二十日부터 비가 二、三日식걸려쉴새업시 내리여 西北朝鮮의 旱魃騷動은 모르는드시 장마가繼續되고잇는데 그로因하야 全南道內는 今月十日까지의 移秧面積을보면 二十二萬一千町步의移秧을보혀 全道九割八分의 成績을내이어 前年同期八割五分에 比하면지못조흔 好狀況으로 二十一郡二府一島에 이미 十四郡은 移秧을 全部 맛치엇다는데 各郡의移秧成績은 다음과갓다

◆木浦一、〇〇 ◆光州〇、八八 ◆光山一、〇〇 ◆潭陽一、〇〇 ◆谷城〇、九七 ◆求禮〇、九八 ◆光陽一、〇〇 ◆麗水一、〇〇 ◆順天一、〇〇 ◆高興一、〇〇 ◆寶城一、〇〇 ◆和順一、〇〇 ◆長興一、〇〇 ◆康津〇、九八 ◆海南一、〇〇 ◆靈岩一、〇〇 ◆務安〇、九四 ◆羅州一、〇〇 ◆咸平〇、九三 ◆靈光〇、八九 ◆長城〇、九七 ◆莞島〇、九九 ◆珍島一、〇〇 ◆濟州〇、九八 ◆合計〇、九八

부채・발・등거리

보기만하야도 땀이것는다 레ー스커텐을 通하야 드러오는 바람을 사놀하다할진대 網簾을 通하야 드러오는 바람은 서늘하다고 할가

◆몃칠만 부츠면 찌저지는 싱거운『開化扇』은 다 무어인가 全羅道南原、潭陽、羅州名産竹扇 방안에들면 남미扇、박게나면 合竹扇 우으로 錦太極、아래로 太極扇 西北의 구수한 삿부채 이것저것을 것어서 룡룡하고 鄕土色이 넘친다 그 운치야말로『開化扇』이 엇지 따르랴

◆진땀이 생솟듯하야 옷이 척척드러붓흘때『메리야스사쓰』『지지미사쓰』따위는 다 버서버리고 藤등거리、로수는 여며할가 된다

◆레ー스커텐도 조치만 발은 어떠한고 西北의 갈발은 좀 우악스럽다 할지나 全羅道潭陽、寶城、羅州名産竹簾은 버리지못할것이다 太極中簾은 제천天으로 壽富字 문후의 細簾은

扇風機바람에 感氣들리기쉬거든 뒤로물러가 발드려天고 藤등거리、토수에 부채질이나 하여보라 開化도안 조흔건아니로되 엣것이라고 터퍼노코 수모할것은못

外形本位에서 藥效本位로

錦山人蔘檢査方針

【錦山】全北錦山 人蔘同業組合에서는 從來八月八日부터 十月七日까지에 行하여오든 錦山土産人蔘檢査를 今年부터는 方針을 過去의外形本位보다 實效本位로 變更하야 等分査定할 目的으로 檢査를 過去보다 一週日을 延期하야 八月十五日부터 施行하기로 決定하엿스며 採掘即 摘手은 既報와如히 向後

有畜農業의 積極的開拓

總督府에서考究中

有畜農業에對하야서는 朝鮮은 이미그素質을 有하야 廣大한 空閑地와 過剩勞力으로 그進展條件이 期待되고잇는바 農林局에서는 十二年以降 緬羊、馬、畜牛의 三者에 亘하야 既報와如히 擴充計畫을 進行하는同時에 單純한 增畜만이아니라 이의 農業에의 多角的利用과 그合理的消化의 方法에도 進出하기로 되엇다 即 緬羊은 既報와如히 向後

十箇年 五十萬頭計畫、畜牛는 [illegible] 十五箇年計畫三萬頭 [illegible] 增頭數二百五十萬頭(現在百六十五萬頭)의 各增大에 一齊히 着手할터인데 이에 [illegible] 總督府의 畜産關係機關을 擴大하야 畜産行政의 圓滑을 圖하고 一面 牛羊等의 肉의利用加工、販賣、牛馬의勞力의能率的利用等에 各各着手하기로 되엇다

[illegible] 八月八日 以前에 [illegible] (腐敗等特別한 境遇에는 此限에不在함) 採取치못하도록 許可치 안키로 되엿다는데 萬一 [illegible] 失이 多大할터임으로 一般耕作者들은 [illegible] 다려 [illegible] 바란다고한다

全南海苔生産 東洋第一位占領

勿驚六億萬枚를突破

【光州】全南의 今年海苔가 豊作이라함은 既報하얏거니와 이번에 全産額의 總決算을 보건대 全南産額이 六億六千餘萬枚로東洋第一을 자랑하는 東京灣의生産은 밀할것도업고 日本內地全生産額을 훨신 凌駕하얏는데 各産地數字를 보면 다음과갓다

生産地名	産額
◆全南	六六、三二五枚
◆慶南	二、四一五
◆黃海道	三、三五〇
◆東京灣	二五、〇〇〇

農業補習敎育 形式化의傾向

地方振興計畫의 擴大에 伴하야 農村中堅人物養成機關의 擴張이 急務로되어 總督府에서는 實業補習學校規程을 改訂하야 補助交附金의 支給으로 着着內容의 充實 擴張을 圖하고잇는바 最近의 各農業補習敎育의 實狀에 徵하면 자칫하면 劃一的形式主義에 흘러

一、地方的特殊事情考慮

一、農道精神의 普及徹底

一、實用農業의體得

의 諸項에關하야 遺憾된 點이 不少한 狀況임으로 總督府에서 各道에對하야 此等의 農業補習敎育의 敗正徹底에 關하야注意를 促하게되엇다

江陵電氣를 朝電에賣渡

來八月一日에移管

【江陵】江陵電氣를 朝鮮電力이 買收한다고하야 江陵電氣側에서는 業績도 相當히 安定化하여가는 此際에 賣渡한다는것은 意外의 일이라하야 如何한 好條件이잇드라도 此를 賣渡할 意嚮이업다고 頑强히 拒否的態度를 抱懷하고잇섯스나 當局에서 國家電力統制와 東海岸産業發展上 此를 朝鮮電力에 賣渡하는것이 上策이란 見解를 表示함에이르러 그間 總督府當局이介在하야 數次 折衝하야 겨우一致點을 發見하야 起業以來 八年을 一期로 大部分이 朝鮮人의 손으로 經營하야오든 江陵電氣는 大財閥에 또한 買收를 當하얏다 이제 그實買條件에對하야는 當局者가 發表를 不肯하므로 詳細히 알수업스나 가

一、同會社四千株를 三十七萬五千圓으로 認定함

二、重役及 使用人手當으로 二萬三千圓을 買收側이 支給할 것

三、昭和十一年 八月一日 引繼를 斷行함

四、從業員은 新會社에 此를 移託하나 重役은 總辭職함

五、新會社가 引受한後滿一個年 以內 十三勾로 燭光에 一個月電氣料金壹圓을 五十錢으로 引下함(總督府指示)

以上과 갓다는데 江陵電氣會社에서 지난 七日 午後一時 江陵公會堂에서 株主總會를 開催하야 以上의 條件을 滿場一致로 可決하는 同時에 今年 六月、七月 兩個月中에 年八分配當으로 假定하게되면 利益剩餘金四千圓은 公共團體에 寄贈하게로 하얏다는데 아마 江陵面校에 寄贈할것이라고 觀測된다

慶北薄荷生産

年二萬餘圓 面積約八百町

【大邱】慶北道內에서는 最近에 잇서 薄荷栽培가 몹시增加되어 慶山郡외 十六個郡의 昨年度의 栽培總面積이 七百五十三町步에 生産數量이 五萬五千四百二十貫으로 그金額이 二萬二千一百三

妙藥?九龍虫 輸入을禁止

菜園을侵害하는害虫

一、二年前 安東縣의 滿人間에 流行하고잇든 九龍虫은 不老長壽의妙藥이라함으로 京城에서도 流行하게되엿는데 이는 野菜를 侵害하는 害虫인것이 判明되어 植物檢査規則第一條를 適用하야 輸入禁止로 되엇다 農林局에서는 十七日各關係에 通牒하야 即日實施하기로되엇다

엿습으로 流行의 九龍虫은 一時國外으로부터 드려오지못하게 되엇는데現在 飼養되고잇는것도 漸次 蔓延되어 朝鮮內로부터 九龍虫을 一掃할터이라한다 그런데 食用蝸牛도 去六月十五日 植物을 侵害하는 害虫이라하야 輸入禁止되리이다

江華小麥共同販賣

【江華】江華郡農會에서는 地方産業振興을 圖키爲하야 朝鮮麥粉會社와 契約하고 七月十五日부터 九月十五日까지 江華市、溫水里、吉祥市、良谷市、外山市、萬里市의 六市日마다 小麥共同販賣를 하엿다는데 昨年度에 比하면 高價임으로 多少農家에 도움이되리라는바 販賣價格은 如左하다 一石價十五日現在▲一等 十七圓三十六錢五厘 ▲二等十七圓十六

十九圓이라는데 그中에 錦山이 首位를 占하얏다 한다

總五厘▲三等十六圓九十六錢五厘 ▲等外十六圓四十六錢五厘

新昌港蟹罐詰 製造高減少

原料購入難이主原因

【新昌】昭和十年度七月末부터今年度五月末日까지의 咸南新昌港蟹罐詰製造業出高를 調査하여보면 約四萬圓에 不滿하다함으로 當業者는 多少 打擊을 蒙하게되엿 인데 이는 天候不順으로 原料購入難에 基因한 까닭이라한다

産◇業◇短◇信

◆秦川 平北泰川郡內에는 酒造場이 亂立하야 서로 紛糾와 競爭이 繼續되든바 지난 三月부터 泰川稅務署의 統制方針에 依하야 三區 東面 松竹外 各工場을 倂合하야 株式會社를 만들고저 朴文彬氏의 周旋으로 會議와 折衝을 거듭하든中 資本金 十萬圓의 泰川酒造株式會社를 設立하기로되야 지난二十六日 稅務署의 承諾을맛고 株式會社로 登錄을하게되엿다한다

日用商品市況

十七日 京城雜穀市況은如左하다

▲大豆 堅調

滿洲高와 實物稀少로 連日騰貴하며 日本內地注文도 繼續되고 잇스며 目前軟化는 不可望形勢이라

龍山三等 一三、二〇

速長 一三、七〇

金浦南海 一三、一〇

▲大麥 保合

凶作關係로 實物이 豊富치못하나 日本內地白麥에 壓倒되며 時勢는 如前히 保合이다

秋麥 九、〇〇

春麥 七、八〇

▲粟 弱含

大麥出廻와 日本內地 白麥低價 移入旺盛으로 粟麥이 不良하야 産地에比하야 壹二十錢 逆鞘이다

▲小麥 低弛

今日産地入電에依하면 天、四平街等 九、二〇이며 當地는現物入、九〇實賣이나 大端히閑散하다 京仁在庫도 豊富함으로 當分反撥할것갓지안타 日本內地麥、外麥等은 連日軟調이나 朝鮮麥은 各地出廻가 始作되엿스며 米價暴落으로 賣氣가 助長되여 多少間 抵弛되엿다

沙里院 一八、〇〇

沿線 一七、八〇

▲胡麻 保合

當地實行不振으로 南京一等十六圓으로 保合이나 産地入金은 一七、〇〇으로 頑强하며 新穀時까지 供給不足될것임으로 結局産地時勢까지 引上되리라고 觀測되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〇二四九	咸南長津郡北面	七月二日	慶陽郡下南面 李命福
九八三七	慶北軍威郡缶溪面 漆谷郡架山面	七月三日	京城府岡崎町 中原晋作 大邱府東本町 坂口興吉
一一八三四	江原通川郡碧養面	七月三日	元山府錦石洞 代表者 金浩鉉 永興郡鎭坪面 金成華 元山府本町 權寧洙
七三五	全北金堤郡金溝面	七月四日	東京市麴町區丸內 日本鑛業株式會社
六二四一	慶南固城郡上里面 大可面	七月一日	東京市芝區白金今里町 岡崎 博
三八八五	慶南咸安郡咸安面	七月四日	東京市品川區大井南濱川町 今野孝助
三三五八	平北龜城郡梨峴面	七月六日	[illegible] 水野ゾネ
三六七四	同宣川郡宣川邑	同	同
八〇三六	同定州郡玉泉面	同	同 錦山郡金馬面 代表者 徐載禧
一〇八〇	江原淮陽郡上北面	七月六日	全州府高砂町 金德根

京城商品別都賣物價 六月中各指數及比較

品目		單位	平均價格 六月	指數 六月	前月	前年今月
穀物						
玄米	殷良以上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精米	日本內地人用普通品	百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麥	西鮮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	黃海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滿洲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豆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滿洲上	一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纖物原料						
和金巾	三A	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八綿		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紡績二十六手	一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絲	最優格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綿絲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						
石油	松票	一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炭	撫順(中)	一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炭	白炭	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薪		一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						
小麥粉	一等粉	一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精白	一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醬油	甲眞	一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再製鹽	仁川	一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酒	正宗	四斗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酒	麒麟	一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						
豆粕		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硫安		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						
木材	朝鮮松挽材	一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物	亞鉛引波板	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板硝子	旭	一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牛皮	乾皮上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紙	四二七(四二七封度)	一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寸	羽	一百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漁村의困境과 그實際的救濟策

③ 朴炯壽

그리고 여기에 한가지 重大한 問題는 漁族問題이다 發動機船이 생긴후로부터 最近各海洋에 問題되어오는 兒童太란 明太魚의새기가 漁獲되여 魚族蕃殖에 큰 影響을 주고잇는것이다 刺網漁船이란것은水面에 떼를 띄우고 刺網을水面으로부터 水中間에도、不及할程度로 約二十尺 水底에數量하기때문에 모다 大明太魚가 걸리지마는 發動船은 怒數網이기때문에 海底를 鉅逐는故로魚族의本據인 水底에棲息하는 小明太(即兒童太)를 잡어내여 將來 魚族蕃殖을防害하다십히 되여잇다 이實例로서는 只今으로부터 約七、八年前까지에는 海邊에서 約三十里乃至五十里 海中에서 明太魚가잡히든것이 現在狀況을 보며면지어도 二百里內外의 遠洋으로出帆하지안코는 明太魚를 發見하지못하게되엿다 元來 大明太란 海底에 棲息하는것이아니고水中間以上에 떠돌지 浮游하기때문에 刺網에걸리게되고 小明太는 언제든지 海底에 뭉키어 한군데 棲息하고 잇는故로手操網이아니고는 잡어내랴고하여도 잡어낼수업는것이다 이런關係上 小明太란 水中間에 一尾도出現하지안는 까닭에 刺網明太에는 兒童太를 볼수업는것이다

요새 商人들이 小明太때문에 말성을 이르키는것 은發動機船의 手操網이 생긴때부터의 問題이다 그러니까 爲先 水産當局에서는 (以下[illegible])

勵上으로보아도 이를 그대로 放置할수업는 重大한 問題이며 따라서 實로 東海岸八十萬漁民의 死活問題도될것이다 그런데 當局으로부터 이에對한 對策은 如何한가 이를取締하기爲하야 警備船 三隻을 配하되 江原과咸南에 警備케한다는바 數萬隻 漁船과 또는 手操網發動機船이 兩道海上에 星辰과 가티 (新漁船도있음) 퍼저잇는데 아무리 疾風迅雷的인들 三隻의 警備船으로서야 어느새 江原에 갓다가 咸南에 올수잇겟는가 이것은 이問題의 專門家가아니고 門外漢이라도 常識으로判斷하여 알수잇스리라고 생각된다

1、漁民에게適當한負擔을期하는것

라、漁業組合의弊害

朝鮮全沿岸을 通하야 重要漁港에는 漁業組合이업는곳이업다 그리하야 이들은 漁民들의生産助長과 漁業獎勵를 標榜하고잇다 그런데 實地를 解剖하여보면 漁業組合存在以前과 以後의 各地漁民들의 生活狀態는 如何한가 다른關係도 잇겟지마는 漁業組合設置前보다 오히려 漁民들은 困境에 잇는듯하다 漁民들의資本인 漁船等은 모조리 漁業組合의 所有化하고만다 漁民에게過重한負擔이 떠구나 漁民에게過重한負擔이 不當하다할것이다 이것은 漁業稅의가튼 公課金을 말함이 아니다 實際로 드러맛하면 漁船綿沿料、漁期定期納金、準備料、共販手數料等이다 新漁業令이 發布되면서부터 水面專用漁業權이 全部 漁業組合에 編入케되여 漁場의 多少를不拘하고 如何한 漁場이라도 一旦 漁民에게만 經沿한다면 所當漁業組合에 그들의 所定漁權을 納入치안을수업게되어 이것은 法令으로 되것이아니지마는 어쩨되면 漁業組合이 水面所有權을 保持하기 때문이다 大

體로 朝鮮漁民은 漁期를 三期로 分하엿는바 一은 明太期 二는鰮漁期 三은雜魚漁期로서 明太漁期는 그期의 定期納付金이잇고 鰮漁期에잇서서는 또한 그期의 定期納付金이잇스며 雜魚漁期에 잇서서도 그漁期의 定期納付金이 잇는것이다 이것이 모다 法令으로된 漁業稅가아니다。漁業組合當局이 制定한것인데 各期에잇서서 漁船每隻에 定期的으로 徵收하고잇는것이다 만일이것을 拒否한다면 監督機關이란 漁業組合을주지안는故로 엇지할道理가 업는것이다 또한 準備賣란것이 잇스니 이것은漁業組合이 若干의金錢을起債하야 各浦에 波堤비슷하게 準備를 築造하고 漁船每隻에서 約 三十圓가량식徵收하는것인데 元來 漁港의 防波堤目的하에 相當한 金錢을드리여서 堅固하게한후 그金額에 該當한 徵收가 畢了되면 幾期에 微收할必要가 업슴에도 不拘하고 이때까지의 防波堤란 一年도 못견디는 防波堤로 多大한 金額만 消費하야 漂流되고 만다고 漁民에게서 準備料의 形式이나 만흠고 漁業期마다 漁民에게서 徵收하는것이 적지안타 바다내는것이 또는 共販手數料란것은 漁業組合當局이 漁民들의 生産物을 한곳에 모아노코 一般商人들에게 共同入札에 付하는 것인데 即 말하면 販賣를 統制하는것이다。漁獲物 共同販賣는 조흔나 漁組의 手數料가 過重하고 또 漁獲物은 自由販賣의 時價보다 廉價로 處分되니 漁民에게그 有利한것이라고 하기어렵다

前記 네가지 即漁船綿沿料 漁期定期納金、準備稅、共販手數料等 過重한 負擔으로서 漁民大衆은 不利한 處地에 落하고잇는것이다

2、現代貸付와 姑息的融資

漁民은 언제던지 經常的으로 流動資金이 업시는 漁業을 持續하기어렵다

漁民은 不意의 災變이 아니라도 漁網의破裂、遺失、漁船破損、漁眞變動、其外事故가 常例的으로 發生되고 잇스며 또는 漁獲物을 換賣하는 經過도 잇서서 매기울 漁船이 進水할때에 固定資金以外에 流動資金이 업시는 漁撈를 圓滿할수업는것이다 그런데 漁業組合은 이事情을 不聽하고 처음의 固定資金以外에는 融通을 不許하기때문에 漁民은 만흔困難을 격고잇으며 或 融通하여 준다하여도 (特殊例外)이러한 事態가 起되는때에 그當時 姑息的으로 얼마간 변통하여주고보니 漁民들의 困難한 處地는 말할것도업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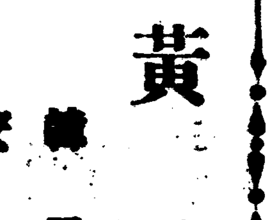
그리고 또한 現貸付에 있어서도 漁民들의 所要期에 貸付하고 十二月까지 하여야 漁民들의 抗議가 十분에 여러번되여야 一定한 時期에 收給하기 爲한 것이다

長期漁資의 必要를느기게되다 그것은 資本回轉의 制限性을 가진 農業과는 다른데 큰 關係가잇다 農業은 一定한 時期에 投資하엿다가 도한 一定한 時期에 農者들 回收할수잇지마는 漁業이란 一定한 時期가업시 一年十二個月동안 언제든지 休漁日이업시하는 業인故로 적어도 幾年間繼續的으로 生産하지안코는 그成果를 엇지 못한것이나 이러함에도 不拘하고 그들에게대한 漁業組合의 融資의 形式은 但今 今年冬期에 投資하엿다면 翌年春期에 가서는 遺漏업시 不顧하고 回收한다 그리고 만약 生産이 完全하야 漁資를 回收치못하면 漁民들의 所有物(家具 漁船漁具)를 强制로 押收하야 償還케하는것이다

그러므로 短期融資는 漁民에게있서서 큰 禍害이다

黃昏 (134)

韓雪野作 安夕影畵



방황(彷徨) (八)

경재는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쓰고 도생각하엿다。

그전 한때에는 그도 지식으로 현옥을 사랑한일이 잇다。

그때는 현옥이가주는 것이 모다 만족게 생각되엇섯다。그러나 이미 그고개를 넘어서 내려다보면 것기 서글한 감정은 출처럼 뗏뗏로 솟기가 지아넛섯다。

어쨋던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알수업는것이엇다。

그는 물론 또 이러한것을 가엿다 ー려순에게 대해서도 어느고비만 넘어서면 그러케 되지안을가? 아직은 그고개를 넘다 안해서지못해서 안달하고 미련을 가지는것이지만 장차는 또 감정이 식어지지안을가?

그것은 자기로도 분간할수업는일이엇다。

그러한 심리상의 [illegible] 그가 제일위험하게 생각하는 [illegible] 서민(小市民)의 [illegible] 다。소시민의가슴에는 [illegible] 우리가 엄는데선 [illegible] 개가 만하。그래서 꼬개를 오르기도하고 도내리기도 하다。

이러한 감정은 왜 [illegible] 이 끌어따가 도수이 식는것이 다!

그러라고하면 어느새 [illegible] 게 대해서 식어지지안을 [illegible] 게 대하야 자별업시 [illegible] 을리지도 모르는것이 아닌가? 아니 그보다도 수란 [illegible] 대하야 감정은 자존가 [illegible] 어가고 주마등가 [illegible] 도 모르는것이 아닌가? [illegible] 면 이앞가는 [illegible] 정연고? 이러케생각하니 [illegible]

그들 정말 저자신을 저로 또 엇지할수업슨것을 [illegible]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illegible] 서도 그리고 그것은 [illegible] 그러나 다만지 되어지지안을 [illegible] 업는 그러케 되어지지않는 [illegible] 다。

그는 물론 중간에서 [illegible] 에 [illegible] 서 [illegible] 뜻할 [illegible]

[illegible] 그는 이러케 모든것을 이지러이 생각하여야 [illegible]